

아시아투데이

[투데이갤러리]오계숙의 '푸른 하늘, 푸른 발'

전혜원 기자 | 기사승인 2018. 04. 15. 10:26



푸른 하늘, 푸른 발(126x91.5cm 자수실, 한지, 혼합 물감 2018)

여성으로의 삶과 경험을 섬유 설치 작업으로 표현해온 오계숙 작가는 심 없는 혁신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가며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.

그는 미국 뉴욕,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프랑스 파리, 이탈리아 피렌체, 독일 베를린, 영국 런던 등에서 총 20 회의 개인전과 84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.

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작가는 인류 사상사 속에서 페미니즘이 일렁일 때부터 거대한 파도가 된 작금에 이르기까지, '페미니즘'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왔다.

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사유를 심화한 그의 작품은 여성성의 우주적 세계를 형상화한다.

갤러리 아트링크

©"젊은 파워,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"
전혜원 기자 summerrain@asiatoday.co.kr